

<Brief Report>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이 현 희[†] 김 은 정 이 민 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센터

아주대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재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PANAS 척도는 내적 합치도가 .84로 비교적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고, 정적 정서 척도와 부정적 정서 척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 결과, 부정적 정서와 정적 정서 두 요인이 산출되어 PANAS 척도가 처음 개발될 당시의 두 요인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원칙도의 정적 정서 요인이었던 '기민한(alert)'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 요인에 포함되었다. PANAS 척도의 구성 타당도 및 외적 타당도를 보기 위해 기분 측정 도구인 POMS 및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PANAS 척도의 정적 정서 요인은 POMS의 하위 요인 중 '의기소침과 낙심요인' 및 '피곤과 무기력 요인'과는 부정적 상관을, '생기와 활력 요인' 및 '우호 요인'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SCL-90-R에서는 우울과 부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PANAS 척도의 부정적 정서 요인은 POMS의 하위 요인 중 '긴장 불안 요인', '혼돈과 당황 요인', '분노와 적개심 요인' 및 SCL-90-R의 나머지 요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 신뢰도, 타당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현 희 /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192 부천테크노파크202-105
FAX : 032-621-0608 / E-mail : hyunnews@hanmail.net

정서의 구조에 대한 최근의 연구(강혜자, 한덕용, 전경구, 2000; 안신호, 권오식, 이승혜, 1990; Watson & Tellegen, 1985, 1988)를 보면 정서가 크게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요인으로 나뉘며 자기보고식 정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두 개의 우세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차원으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Watson과 Clark 및 Tellegen(1988)에 의하면, 정적 정서(Positive Affect; PA)는 사람이 열광적이고 활동적이고, 민활함을 느끼는 정도를 반영한다. 높은 정적 정서는 높은 에너지, 완전한 집중, 즐거운 일 등의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낮은 정적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의 특징을 갖는다. 반대로,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 NA)는 분노, 경멸, 메스꺼움, 죄의식, 공포, 신경증을 포함한 다양한 혐오적 정서 상태가 포함되는 주관적인 고통과 불쾌한 일의 일반적인 차원을 말한다. 이때 부정적 정서가 낮다는 것은 차분함(calmness), 평온함(serenity)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정적 정서 특질과 부정적 정서 특질은 외향성, 불안/신경증 등의 지배적인 성격 특질과 대략적으로 일치한다(Tellegen, 1985; Watson & Clark, 1984). 또한 낮은 정적 정서와 높은 부정적 정서는 우울과 불안 등을 구별짓는 중요한 요소들이다(Tellegen, 1985; Hall, 1977).

부정적 정서는 자기보고된 스트레스와 빈약한 대처(Clark & Watson, 1986;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Wills, 1986), 건강에 대한 불평(Beiser, 1974; Bradburn, 1969; Tessler & Mechanic, 1978), 빈번한 불쾌한 사건(Stone, 1981; Warr, Barter, & Brownbridge, 1983) 등과 관련되고, 정적 정서는 사회적 활동, 만족감, 빈번한 즐거운 사건들과 관련된다(Beiser, 1974; Bradburn, 1969; Clark & Watson, 1986; Watson, 1988).

이 두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서구에서 많은 정서 척도가 개발되었지만 많은 경우 부적절하고 신뢰도가 낮거나 수렴 타당도가 빈약하였다. 이에 Watson 등(1988)은 짧고 측정하기 쉬우면서 신뢰롭고 타당하게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정적 및 부정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개발했다. Watson 등(1988)은 먼저 Zevon과 Tellegen(1982)이 보고한 60문항의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요인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정적 정서 척도 10문항과 부정적 정서 척도 10문항을 가려내었다. 그 다음 이 20문항 척도를 시간 구조를 달리 해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높았고 서로 독립적이었으며, 2개월의 간격 후에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SCL(Hopkins Symptom Checklist), BDI(Beck Depression Inventory) 및 A-State(STAI State Anxiety Scale) 등과 상관분석을 한 결과, 부정적 정서 척도는 HSCL, BDI, A-State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정적 정서 척도는 부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 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PANAS의 신뢰도 및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졌고(Killgore, 2000; 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PANAS의 특성이 지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Kvaal과 Patodia(2000)은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적 및 부정적 정서와 신체적 증상들 및 고통간의 관계를 PANAS를 이용해서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간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정적 정서는 고통 강도(intensity)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만 Killgore(2000)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가 세부적으로 '마음이 상한(Upset)' 척도와 '두려운(Afraid)' 척도로 나뉘어져서 PANAS가 3개의 하

위 척도로 나뉠 수 있다고 나타나, 추후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유정(1994)이 PANAS를 처음 번안하여 사용했으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은 하지 않았고 이 후 여러 분야에서 정서 연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번안되어 사용하고 있는 PANAS의 검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낮은 감이 있으나 PANA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PANAS 척도의 요인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알아본 후, PANAS와 유사한 정서 척도인 기분상태 척도(Profile of Mood States; POMS)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PANAS와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중 정신증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60명과, 연령 수준이 통제된 서울 및 수도

권 거주 직장인 140명 등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PANAS와 타당화를 위한 추가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237명(학생 155명과 직장인 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측정 도구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척도는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정 적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이유정(1994)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를 사용하기에 앞서 1차적으로 임상심리학 교수 1명과 박사과정생 2명, 석사과정생 1명과 함께 원척도의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번역이 부적절한 세 문항을 수정했고, 2차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심리학 석사를 통해 번역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로한’은 ‘괴로운(distressed)’으로, ‘민활한’은 ‘기민한(alert)’으로, ‘혼란스러운’은 ‘마음이 상한(upset)’으로 원어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유정(1994)이 번안한 척도의 형용사 배열 순서가 원척도의 순서와 맞지 않고 정적 척도와 부적 척도가 적절하게 섞여 있지 않아 원척도의 순서대로 정적 척도와 부적 척도 문항을 적절히 섞어

표 1.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분포

특 성	대학생 집단		직장인 집단	계
	(n=155)			
성별(%)	남자	77(49.7)	32(39.0)	109(45.9)
	여자	78(50.3)	50(61.0)	128(54.1)
평균연령(SD)		22.94(2.57)	27.54(4.55)	24.5(4.02)

배치하였다. 또한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과거 몇 일', '과거 몇 주', '1년' 등으로 시간 구조를 달리해서 정서를 측정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정서만을 측정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1='약간 그렇다', 2='보통 정도로 그렇다', 3='많이 그렇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심리치료 및 항정신약물 사용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뿐만 아니라 심리측정 검사로서 쓰일 수 있도록 Derogatis와 Rickels 및 Rock(1976)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다차원증상 목록(multidimensional self-report symptom inventory) 검사'의 한국판 척도이다. 본 검사는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및 김광윤(1978)에 의해 표준화되었으며, 총 90문항으로 9개의 증상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Likert 5점 척도(0='전혀 없다', 1='약간 있다', 2='웬만큼 있다', 3='꽤 심하다', 4='아주 심하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증 차원(10문항)을 제외한 8개의 증상 차원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간이정신진단 검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 α)는 .97이었고, 하위 척도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신체화(12문항)가 .91, 강박증(10문항)이 .82, 대인관계(9문항)가 .84, 우울(13문항)이 .91, 불안(10문항)이 .89, 적대감(6문항)이 .83, 공황불안(7문항)이 .81, 편집증(6문항)이 .78이었다.

기분상태 측정도구 (POMS)

본 연구에서 타당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척도는 McNair과 Lorr 및 Droppleman(1992)이 개발한

POMS(Profile of Mood States)를 윤재량(1993)이 번안한 것이다. 이 도구는 측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기분을 묘사하는 도구로서, 7개의 세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인별로 보면, 긴장과 불안요인(tension-anxiety) 9문항,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depression-dejection) 15문항, 분노와 적개심 요인(anger-hostility) 12문항, 생기와 활력 요인(vigor-activity) 8문항, 피곤과 무기력 요인(fatigue-inertia) 7문항, 혼돈과 당황 요인(confusion-bewilderment) 7문항, 우호 요인(friendliness) 7문항으로서 총 65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0='전혀 그렇지 않다', 1='약간 그렇다', 2='보통 정도로 그렇다', 3='많이 그렇다', 4='매우 많이 그렇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기분상태 측정도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 α)는 .96이었고,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긴장과 불안요인이 .79,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이 .95, 생기와 활력 요인이 .90, 피곤과 무기력 요인이 .88, 혼돈과 당황 요인이 .77, 우호 요인이 .80, 분노와 적개심 요인이 .92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0.0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hronbach α)를 산출하였으며, 타당도 분석에서는 먼저 PANAS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해 PANAS와 다른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하였다.

결 과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의 신뢰도

표 2. 내적 합치도

	문항수	본연구	Watson 등(1988)
전체 척도	20	.84	(제시되지 않음)
정적 정서	10	.84	.88
부적 정서	10	.87	.85

본 연구에서 산출된 PANAS의 전체 점수와 하위 척도 점수들의 내적 합치도 계수(Chronbach α)를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산출된 자료와 비교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는 PANAS 개발자들의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의 타당도

PANAS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요인 분석을 통해 내적 구조를 살펴보고, 둘째,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및 기분 측정 도구(POMS)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요인분석

한국판 PANAS척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원척도의 개발자가 두 개의 요인을 상정하고 만든 척도라서 요인의 개수를 2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요인 구조를 얻기 위한 회전 방식은 직교회전(Varrimax rotation) 방식을 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상관행렬이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요인 1은 ‘신경질적인’, ‘과민한’, ‘괴로운’, ‘마음이 상한’, ‘두려운’, ‘적대적인’, ‘조바심나는’,

표 3.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요인1 (부적정서)	요인2 (정적정서)
1. 신경질적인(nervous)	.729	.030
2. 과민한(irritable)	.713	.102
3. 괴로운(distressed)	.678	.000
4. 마음이 상한(upset)	.659	.021
5. 두려운(afraid)	.644	-.065
6. 적대적인(hostile)	.625	-.047
7. 조바심나는(jittery)	.592	.107
8. 겁에 질린(scared)	.573	-.031
9. 기민한(alert)	.525	.305
10. 죄책감 드는(guilty)	.493	.033
11. 부끄러운(ashamed)	.481	.142
12. 활기찬(active)	-.141	.772
13. 열정적인(enthusiastic)	-.058	.752
14. 원기왕성한(inspired)	-.096	.750
15. 자랑스러운(proud)	-.061	.701
16. 강한(strong)	.212	.523
17. 흥미진진한(interested)	-.061	.522
18. 흥분된(excited)	.215	.517
19. 단호한(determined)	.206	.471
20. 주의깊은(attentive)	.156	.416

- 1) 요인 1의 고유치는 5.15, 정적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총변량의 21.83%를 설명함.
- 2) 요인 2의 고유치는 3.94, 정적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총변량의 17.84%를 설명함.

‘겁에 질린’, ‘죄책감드는’, ‘부끄러운’, ‘기민한’ 등의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 정서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정적 정서로 분류되었던 ‘기민한(alert)’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로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추후 문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분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

표 4. 요인상관행렬

요인	요인1(부적 정서)	요인2(정적 정서)
요인1(부적 정서)	.883	.006
요인2(정적 정서)	.006	.876

는지 살펴보고 번역상의 문제인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요인 2에는 ‘활기찬’, ‘열정적인’, ‘원기왕성한’, ‘자랑스러운’, ‘강한’, ‘흥미진진한’, ‘흥분된’, ‘단호한’, ‘주의깊은’ 등의 9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적 정서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각 요인별 설명변량을 살펴보면, 요인 1은 전체 변량의 21.83%를 설명하고, 요인 2는 전체 변량의 17.84%를 설명해서 요인 1의 설명량이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요인간 상관은 표 4에 제시하였는데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연구(Kvaal & Patodia, 2000; Melvin & Molloy, 2000; Watson, Clark & Tellegon, 1988)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정

적 정서와 부적 정서 간의 독립적이고 직교적인(orthogonal)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와 다른 질문지들간의 상관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분 측정 도구인 POMS 및 SCL-90-R과의 상관을 살펴보았고 이를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POMS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적 정서는 POMS의 하위 요인 중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r=-.14, p<.05$)’ 및 ‘피곤과 무기력 요인($r=-.19,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생기와 활력 요인($r=.61, p<.001$)’ 및 ‘우호 요인($r=.59, p<.001$)’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적 정서는 POMS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 중 ‘긴장 불안 요인($r=.68, p<.001$)’,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r=.70, p<.001$)’, ‘피곤과 무기력 요인($r=.59, p<.001$)’, ‘혼돈과 당황 요인($r=.61, p<.61$)’, ‘분노와 적개심 요인($r=.65, p<.001$)’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표 5.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와 POMS와의 상관계수

	POMS 전체	긴장불안 요인	의기소침과 낙심요인	생기와 활력 요인	피곤과 무기력요인	혼돈과 당황요인	우호 요인	분노와 적개심요인
정적정서	.20	.07	-.14*	.61***	-.19**	-.03	.59***	-.05
부적정서	.68***	.65***	.70***	-.04	.59***	.61***	.06	.65***

* $p<.05$, ** $p<.01$, *** $p<.001$

표 6.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와 SCL-90-R과의 상관계수

	SCL90 (정신증 제외)	신체화	강박증	대인 관계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황불안	편집증
정적정서	-.03	.03	-.05	-.03	-.19**	.02	.01	.02	.05
부적정서	.68***	.44***	.67***	.61***	.67***	.65***	.61***	.39***	.52***

** $p<.01$, *** $p<.001$

불 때 정적 정서 요인 및 부정 정서 요인은 각각의 정서적 특성을 잘 변별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ANAS 척도와 정신증 척도를 제외한 SCL-90-R과의 상관분석 결과, 정적 정서는 우울과 유의미한 부정 상관($r=-.19, p<.01$)을 나타냈고, 부정 정서는 SCL-90-R 전체 척도($r=.68, p<.001$) 및 8 개의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로써 PANAS의 타당도가 높고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의 구성 개념이 다른 정서 관련 척도들의 개념 및 특성도 잘 나타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와 관련된 자기진술을 평가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우리말로 재번안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고 임상적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본 연구가 지닌 문제점과 향후 보완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뢰도 분석 결과, 내적 합치도 면에서 PANAS의 전체 척도와 2개 하위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가 .84-.87로, Watson 등(1988)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번의 내적 합치도 결과만으로 본 척도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Watson 등(1988)이 8주 간격으로 측정하여 산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에서 .71로 유의도 .05 수준에

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PANAS의 구성타당도를 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처럼 두 개의 요인이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Watson, Clark & Tellegen, 1988)에서 정적 정서에 포함되었던 '기민한(alert)'의 문항이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민한(alert)' 문항의 부하가 정적 정서 요인에서도 .305로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정서를 의미하는 단어로서의 '기민한(alert)'에 대한 번역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alert'의 의미를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경계하는 상태'로 파악했는데, 국어사전에 의하면 '기민한'이 '행동이 날쌔고 재빠른'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어서 적절한 의미전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PANAS와 기분 측정 도구인 POMS와의 상관분석 결과, 정적 정서는 POMS의 하위 요인 중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 및 피곤과 무기력 요인과는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생기와 활력 요인 및 우호 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 정서는 POMS 전체 척도 및 하위 요인 중 긴장 불안 요인, 의기소침과 낙심 요인, 피곤과 무기력 요인, 혼돈과 당황 요인, 분노와 적개심 요인 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PANAS와 SCL-90-R(정신증 제외)과의 상관분석 결과, 정적 정서는 SCL-90-R(정신증 제외)의 하위 요인 중 우울과 유의미한 부정 상관을 나타냈고, 부정 정서는 SCL-90-R(정신증 제외) 전체 척도 및 8 개의 하위 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 논했던 바와 같이 PANAS 척도가 정적 정서보다는 부정 정서를 측정하는 데 타당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SCL-90-R이 임상 현장에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PANAS 척도의 부적 정서가 상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PANAS의 부적 정서 척도의 임상 현장에서의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임상 현장 및 정서관련 연구에 자주 활용되었던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ANAS)'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Watson 등(198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정서뿐만 아니라 '오늘', '과거 몇 일', '과거 몇 주', '1년' 등의 기간을 둔 정서 변화에도 PANAS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신뢰롭게 유지될 수 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요인 분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요인을 미리 지정해서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확증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면 정서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다양한 집단 구성원을 통해 평가를 해보았지만, 피험자 수가 적어서 집단간 비교 분석을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피험자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PANAS 척도를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임상 집단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강혜자, 한덕용, 전검구 (2000). 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치료학회*, 7(1), 51-67.
-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김광윤 (1978).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I: 정상인의 반응특성. *신경정신의학*, 17, 449-458.
- 민경환, 김지현, 황석현, 장승민 (1998). 성·세대·성격 유형에 따른 정서 반응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19-140.
- 신윤희 (1996). 노인의 기분측정을 위한 도구 (Profile of Mood States, POMS)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26(4), 743-758.
- 안신호, 권오식, 이승혜 (1990). 정서의 구조: 정서 단어의 분석. 1990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 윤재량 (1993). 운동강도에 따른 달리기 운동이 호르몬 반응 및 무드 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Beiser, M. (1974). Components and correlates of mental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5, 320-327.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ldine.
- Clark, L. A., & Watson, D. (1986, August). *Diurnal variation in mood: Interaction with daily events and personalit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ashington, DC.
- Derogatis, L. R., Rickels, K., & Rock, A. F. (1976). The SCL-90 and the MMPI: A step in the validation of a new self-report scal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8, 280-289.
- Hall, C. A. (1977).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pleasure and distres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over a past, present, and future time frame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illgore, W. D. (2000). Evidence for a third factor on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in a collage student sample. *Perception Motor Skills*, 90, 147-152.
- Kvaal, S. A., & Patodia, S. (2000). Relations among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somatic symptoms in medically ill patient sample. *Psychological Report*, 87, 227-233.
- McNair, D. M., Lorr, M., & Droppleman, L. F. (1992). *Manual for the profile of mood states*. San Diego: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 Melvin, G. A., & Molloy, G. N. (2000). Som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among Australian youth. *Psychological Report*, 86, 1209-1212.
- Nemanick, R. C. Jr., & Munz, D. C. (1994). Measuring the poles of negative and positive mood using th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and Activation Deactivation Adjective Check List. *Psychological Report*, 74, 195-199.
- Stone, A. A. (1981). The association between perceptions of daily experiences and self-and spouse-rated m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5, 510-522.
- Tellegen, A. (1985). Structures of mood and personality and their relevance to assessing anxiety, with an emphasis on self-report. In A. H. Tuma & J. D. Master (Eds.).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pp. 681-706). Hillsdale, NJ: Erlbaum.
- Tessler, R., & Mechanic, D. (1978).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health statu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54-262.
- Warr, P., Barter, J., & Brownbridge, G. (1983). On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44-651.
- Watson, D. (1988). Intraindividual and interindividual analys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ir relation to health complaints, perceived stress, and daily activ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20-1030.
- Watson, D., & Clark, L. A. (1984). Negative Affectivity: The disposition to experience aversive emotional states. *Psychological Bulletin*, 96, 465-490.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Wills, T. A. (1986). Stress and coping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to substance use in urban school samples. *Health Psychology, 5*, 503-529.

원 고 접 수 일 : 2003. 4. 21

수정원고접수일 : 2003. 8. 6

게 재 결 정 일 : 2003. 8. 26

K C I

<Brief Report>

A Validation Study of Korea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The PANAS Scales

Hyun-Hee Lee

Eun-Jung Kim

Min-Kyou Lee

Vocational Evaluation Center,
Bucheon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PANAS) which had been developed to asses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by Watson et al(1988)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Lee(1994). The PANAS were shown to have high internal consistency coefficient of .84, with the two factors largely uncorrelated.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PANAS had a two-factor structure representing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each. This factor structure is quite same as that of the original PANAS. However, the 'alert' item which belongs to the positive affect factor in the original scale was included in the negative affect factor in this study. To confirm the construct validity and external validity of PANAS, we administered the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PANAS and the POMS and SCL-90-R. The PANAS PA scale is negative correlated with 'depression-dejection factor' and 'fatigue-intertia factor' of the POMS. Also it is positive correlated with 'vigor-activity factor' and 'friendliness factor' of the POMS. The PANAS NA scale is positive correlated with 'tension-anxiety factor', 'confusion-bewilderment factor' and 'anger-hostility factor' of the POMS. The result showed that the PANAS can reflect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very well.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 PANAS, reliability, validity

부 록

한국판 PANAS 척도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기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현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이 느끼는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V”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 정도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흥미진진한					
2	과민한					
3	피로운					
4	기민한					
5	흥분된					
6	부끄러운					
7	마음이 상한					
8	원기왕성한					
9	강한					
10	신경질적인					
11	죄책감드는					
12	단호한					
13	겉에 질린					
14	주의깊은					
15	적대적인					
16	조바심나는					
17	열정적인					
18	활기찬					
19	자랑스러운					
20	두려운					